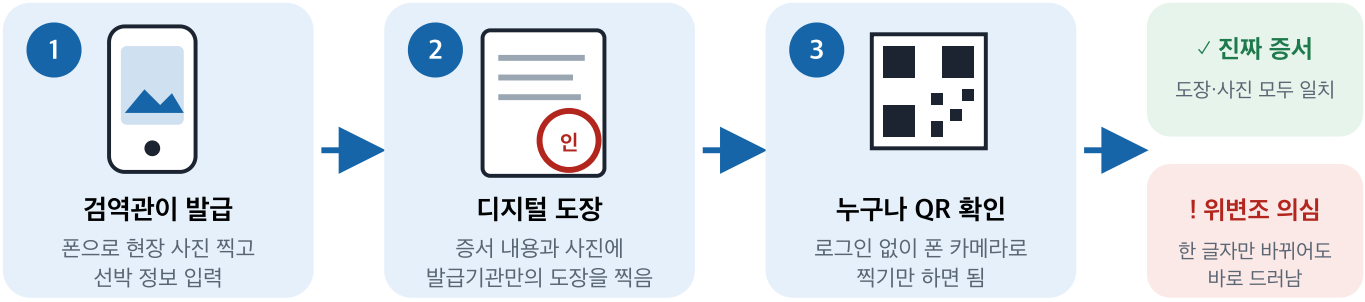
동료와 함께 보는 쉬운 설명

시연용

종이 검역증 대신, 폰으로 확인하는 전자 검역증

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증서를 발급하면, 누구나 QR만 찍어서 진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시연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

이렇게 동작해요



왜 위조가 어려울까요?

도장을 찍는 열쇠는 발급 기관만 갖고 있고, 확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유효기간 하루만 고쳐도 도장이 맞지 않아 "위변조 의심"이 뜹니다.

이런 점이 좋아요

- 선사·항만 관계자가 **앱 설치 없이** 폰으로 바로 확인
- 캡처나 출력물은 화면 속 **움직이는 표시·실시간 시계**로 구별
- 취소한 증서는 다른 사람 폰에서도 **즉시 "취소됨"**으로 보임

시연용이라 알아 둘 점

- 선박·사람·증서는 모두 **가상 데이터**입니다
- 빠르게 보여 드리려고 **일반 클라우드 서비스**에 올렸습니다
- 실제로 쓴다면 저장 위치·도장 방식 등은 **기관 기준에 맞춰** 바꿀 수 있습니다

IT·보안 담당자께 여쭤볼 것 (3가지)

1. **이런 서비스를 작게 시범 운영해 보려면 어떤 검토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**
   예: 보안성 검토, 개인정보 관련 확인 등 필요한 단계와 대략적인 기간
2. **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도 되나요, 아니면 기관 시스템이나 인증받은 클라우드여야 하나요?**
   시범 단계와 실제 운영 단계의 기준이 다른지도 함께
3. **증서의 "디지털 도장"은 기관 인증서(예: 행정전자서명)로 해야 효력이 인정되나요?**
   진위 확인용 도장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

시연 화면: https://ev-ship-ecert.pages.dev — 더 자세한 기술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 "시스템 구성 및 보안 검토 질의서"를 드릴 수 있습니다.

기능 시연용 프로토타입이며 실제 서비스가 아닙니다. 모든 데이터는 가상이며, 질병관리청·국립검역소 공식 시스템이 아닙니다. · 2026-11-02